

# 大學의 3學期制 運營에 따른 教育課程 改編과 教授人力 活用 方案

許 炯  
(中央大 教育學科 副教授)

大學의 學期制에 관한 基本前提는 주어진 敎科課程의 학습효과를 極大化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16週가 완전히 수업하고 시험보는 데에만 투입되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 학기의 學點數도 下向調整되어야 하고 教育效果를 極大化하는 데 最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여름학기의 적극적인 개설이 연구·검토되어 다양한 전공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 I. 研究問題의 提起

大學의 學期制는 대학의 教育課程과 教授人力의 活用に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組織이다. 教育課程을 운영하는 學期制는 대학에 관련된 모든 人事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學期制를 채택한다 하여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환영받기도 힘든 일이며 동시에 또 완전하게 거절되지도 못한다. 따라서 어떤 學期制를 채택할 것이냐에 관한 基本問題는 학생들의 教育의 成果를 얼마나 極大化시킬 수 있는 學期制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84學年度부터 우리 나라의 대학의 學期는 종래의 20週 1학기과 16週 2학기를 조정하여 1 학기도 16週, 2학기도 16週의 균형된 2學期制를 基本的 學期制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희망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의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종래의 20주 1학기를 16주로 줄인 것은 20주의 기간이 너무 길어 지루하고 16주인 2학기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또 20주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1학기중에 각종 축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하는 기간은 16주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 教育課程을 끝마치는 때는 별다른 支障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성급하게 시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각종 행사와 공휴일 등 실제 수업기간을 줄이게 하는 대학의 內的·外的 要因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으며, 또 학생들이 수강하는 學點數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16주의 教育期間이라 해도 공휴일, 학교행사, 학생활동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기간은 중간교사 기간과 학

\*이 연구는 1983학년도 문교부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기말고사 기간을 빼면 고작 10주 내지 12주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 기간이 과연 주어진 敎科課程을 이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연구문제로 나타난다. 또한 과거 20주였을 때의 한 학생이 수강하는 학점수는 1,2학년이 19학점, 3,4학년이 18학점이었던 것을 16주로, 과거보다 4주간이 빠진 현학기에서도 수강 학점수를 下向 조정하지 않은 것은 敎育課程을 운영하는 가장 基本的인 요소마저 무시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10~12주 동안에 6개 과목의 18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은 결국 1개 과목을 2주에 끝낸다는 산술적 해석이 가능하다. 과연 대학의 敎科목을 2주에 끝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전혀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한 학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은 대학교육의 質的 水準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6주를 한 학기로 하는 學期制가 계속 시행된다면 필연적으로 학점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Conrad(1978)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16주간을 한 학기로 하는 傳統的 2學期制에서는 한 학기에 4개 敎科목의 12학점으로 학점수를 제한하고 있고, 또 Oleson(1977)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6주 내지 12주를 한 학기(Quarter)로 하는 4學期制(Quarter)에서는 3과목의 9학점으로 학점수를 제한하고 있다.

16주를 한 학기로 하는 2學期制를 계속 채택해야 할 경우 수강 학점수를 9학점 내지 12학점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학점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름학기'를 정식의 학기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름학기'를 정식 학기로 개발하여 3학기제(trimester)로 하지 않고, 또 현재대로 16주의 敎育期間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美國의 4學期制(Quarter)의 두 개 학기만을 운영하는 결과가 된다. 또 이 짧은 기간에 18학점이란 많은 수강 학점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의 質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학기'의 개설을 위한 기본적인 敎育課程 運營과 敎授人力活用に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資料를 수집하여 改善方向을 모색하려는 데 研究目的이 있다.

## II. 大學의 學期制에 관련된 要因

學期制의 改革에 관련된 要因은 여러 가지 要因이 있을 수 있으나, Wells(1981)에 따르면 敎育的 要因, 心理的 要因, 社會的 要因 및 行政的 要因으로 分類해 볼 수 있다.

첫째 敎育的 要因이란 한 학기 동안에 가르쳐지는 敎科內容의 量과 관련된 것을 뜻한다. 학기제 그 자체가 가르쳐지는 敎科목의 敎授目標나 敎授方法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지만, 敎授目標의 量이나 敎授方法에 적절해야 한다. 16주간 의 한 학기에 도저히 끝낼 수 없는 敎科內容이라면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課程 1과 課程 2로 나누어 連續的으로 先修科目(prerequisite task)과 後續科目으로 나누어야 한다.

또 한 학기의 기간의 결정에는 수강신청 기간, 공휴일, 중간고사 기간 및 학기말고사 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에 이수되는 학점수의 最適單位가 결정되어야 한다. 2學期制보다는 3學期制나 4學期制일 때에는 필연적으로 학점수가 적어져야 하며 또 2學期制라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心理的 要因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습의 效果를 最適화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학생과 교수의 학습과 교수의 持續力과 관련되며 학습에의 注意集中을 뜻한다. 비교적 긴 학기를 지루하게 이끌어 나간다는가, 긴 학기의 중간에 여러 가지 학교의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계속된다면 持續的이고 集中的인 학습의 效果는 약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3시간씩 16주를 강의하는 것보다는 매일 3시간씩 16일간 강의하고 끝나는 '여름학기'의 敎育적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긴 학기 동안에 많은 학점을 이수하게 할 것인가 또는 적은 기간에 적은 학점을 이수하게 하여 이를 여러 번 계속되는 3學期制 또는 4學期制의 敎育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社會的 要因은 學校 밖의 社會와 관련된 要因을 말한다. 즉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은 부분적인 직업을 택하여 일을 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수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나 학술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름 학기 개설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요인들이다. 우리 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여름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지나긴 여름방학 기간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공백기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요인으로 대학입학 시험기간과 졸업식 등 學校外的 行政機關과의 관계에서 오는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또 일주일에 5일의 개강 혹은 6일의 개강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학사일정에 관련된 요인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결정들은 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 Ⅲ. 研究結果와 解釋

‘여름학기’ 개설에 관련된 敎育課程 운영과 敎授人力 活用에 관해서 서울시에 있는 종합대학들 중 무선표집한 대학의 학생 246명과 교수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16週 1學期制의 妥當性

1984學年度 1學期부터 시행된 16주를 한 학기로 묶는 學期制는 대학에 敎科課程을 履修하기에 적절한 학기이었는지를 학생이 보는 관점과 교수가 보는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보는 관점과 교수가 보는 관점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어진 敎科課程을 끝내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41.5%,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20.3% 나타

난 데 비하여 교수는 ‘약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44.4%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31.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주로 1학기는 주어진 大學의 敎科課程을 완전히 끝내는 데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16주는 대학의 敎科課程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적은 시간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국에서 16주의 2학기제를 채택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16주간의 시간은 한 敎科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12주를 한 단위로 하는 學期制(Quarter)를 채택하는 대학도 미국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16주가 외국의 대학들처럼 모두 敎科課程의 履修를 위해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휴일·학교행사·학생활동으로 인하여 휴강한 회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이란 학교의 개교기념 축제행사, 각종 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말한다.

학생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62.2%의 학생들이 이러한 공휴일,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등으로 인하여 4회 이상 휴강하였다고 하였고 3회 까지를 합치면 78.2%에 이르고 있다. 교수가 보고한 것도 조사대상 교수 중 44.4%에 해당하는 교수가 자기의 과목에서 3회의 휴강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수의 학회활동 참여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휴강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74.1%의 교수들은 전혀 휴강한 경우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1회 휴강한 경우가 25.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보고에서는 교수의 개인적 사정에

<표 1> 16週 1學期制의 時間的 適切性

(%)

교과과정의 이수 정도	학	생	교	수
충분히 끝낼 수 있었다		44(17.9)		9(16.7)
약간 시간이 부족했다		50(20.3)		24(44.4)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102(41.5)		17(31.5)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50(20.3)		4(7.4)
전	체	246(100.0)		54(100.0)

〈표 2〉 공휴일·학교행사 및 학생활동으로 휴강한 경우 (%)

휴 강 회 수	학 생	교 수
전혀 없었다	11(4.5)	1(1.9)
1회 있었다	18(7.4)	10(18.5)
2회 있었다	24(9.9)	15(27.8)
3회 있었다	39(16.0)	24(44.4)
4회 이상 있었다	151(62.2)	4(7.4)
전 체	243(100.0)	54(100.0)

의하여 휴강한 경우가 '1회 있었다'가 20.7%, '2회 있었다'가 29.6%로 나타나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교수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1~2회 정도는 휴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교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휴강한 경우 (%)

휴 강 회 수	학 생	교 수
전혀 없었다	39(15.8)	40(74.1)
1회 있었다	51(20.7)	14(25.9)
2회 있었다	73(29.6)	0(0.0)
3회 있었다	38(15.3)	0(0.0)
4회 이상 있었다	46(18.6)	0(0.0)
전 체	247(100.0)	54(100.0)

이상의 결과에 터하여 해석하면, 16주의 한 학기 동안 공휴일,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등으로 3~4회의 휴강이 있었고 교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강이 1~2회 있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4~6회 정도의 휴강이 있었으며 16주의 학기 중 정상적으로 教科目的 학습에 할당된 시간은 약 10주에서 12주 정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학기의 실제 수업에 투입한 시간이 10주에서 12주였다고 하면 외국(주로 미국)의 4學期制에 해당된다.

## 2. 16週 1學期の 適正受講學點數

한 學期에 몇 學點을 履修하느냐 하는 것은 학기의 시간적 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학기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많은 학점을 수강해도 학업성취에 무리가 되지 않으나 학기의 길이가 짧을 때의 학점수가 많으면 그만큼 학습 효과

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주는 부담도 대단히 큰 것이다. 이에 따라 학기의 길이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학점수에도 제한을 가하거나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6週 1學期制에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適正學點數가 어느 정도인지를 학생과 교수에게 의견을 들어 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53.1%가 18학점이 適正學點數라고 반응하였고 54.8%의 교수들도 18학점이 적정학점수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適正이란 개념이 문제가 있다. 어느 수준이 '適正'수준인가 하는 기준이 항상 유동적인 것이다.

〈표 4〉 16週 1學期の 適正受講學點數 (%)

적 정 학 점 수	학 생	교 수
12학점(4과목)	12(4.7)	1(1.9)
15학점(5과목)	50(19.7)	12(22.6)
18학점(6과목)	135(53.1)	29(54.8)
21학점(7과목)	51(20.1)	6(11.3)
24학점(8과목)	6(2.4)	5(9.4)
전 체	254(100.0)	53(100.0)

이상에서 학생과 교수가 모두 16週 1學期の 적정 학점수가 18학점이라고 응답한 것은 외국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傳統的 2學期制(traditional semester)를 채택한 경우 한 학기에 12학점(4과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경우나 또 4學期制인 경우 한 학기에 9학점(3과목)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학이 한 학기에 실제 수업하는 시간이 12주라고 한다면 미국의 4학기제의 한 학기에 해당하며 적정 수강 학점수는 9학점(3과목)을 초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3과목 9학점을 수강하는 데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미국의 4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의 수준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수업시간수를 한 학기에 12주로 잡았을 때 18학점을 수강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대단한 무리를 강요하는 것이며, 그렇

지 않다고 한다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文敎部가 종래의 20주 1學期制에서 16주 1學期로 전환하면서도 수강신청 학점수를 下向 조정하지 않은 것은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이라는 점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1,2학년 19학점, 3,4학년 18학점으로 제한한 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여름학기의 正式學期로서의 개설 必要性

16주를 1학기로서 하는 2學期制를 채택할 경우 學點數의 下向調整은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學期數가 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여름학기'의 개설이 정식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여름학기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학생과 교수에게 들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의 32.7%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응했고 55.0%가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또 조사대상 교수의 52.8%는 여름학기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30.2%가 '학생의 요구에

<표 5> 여름학기의 개설 필요성 (%)

여름학기의 필요성	학 생	교 수
반드시 필요하다	82(32.7)	28(52.8)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	138(55.0)	16(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	31(12.3)	9(17.0)
전 체	251(100.0)	53(100.0)

따라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학생이 12.3%, 교수가 17.0%로 나타나 교수와 학생 모두 83% 이상이 여름학기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름학기의 개설이 왜 필요한지를 학생들에게 자유반응을 하도록 하여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이 전체의 37.5%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조기졸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22.0%, '선택과목의 확대'가 12.7%, 그리고 '성적향상을 위한 학

점관리'가 7.6%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전공과목의 보충', '항상 공부하려는 자세 확립', '부전공학점 취득', '교양과목의 보충' 등이 여름학기 개설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생이 반응한 여름학기 개설의 필요성 (%)

여름학기 개설의 이유	학생의 자유반응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의 기회 부여	109(37.5)
조기졸업의 기회제공	64(22.0)
선택과목의 확대이수	37(12.7)
성적향상을 위한 학점관리	22(7.6)
전공과목의 보충기회	16(5.5)
항상 학습하려는 자세 확립	16(5.5)
부전공 학점 취득의 기회 부여	12(4.1)
교양과목의 보충기회	10(3.4)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계획을 위해	5(1.7)
전 체	291(100.0)

또 교수에게 여름학기의 필요성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즉 학생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을 위해서'를 전체 조사대상 교수의 33.3%가 여름학기 개설의 이유로 들고 있고, 24%의 교수가 '조기졸업을 위해서,' 12%가 '전공과목의 보충을 위한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라고 반응하였다.

여름학기의 개설의 이유로 학생과 교수 모두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의 기회 부여'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은 졸업정원제에 따른 탈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조기졸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여름

<표 7> 교수가 반응한 여름학기 개설의 필요성 (%)

여름학기 개설의 이유	교수의 자유반응
졸업을 위한 학점취득의 기회부여	25(33.3)
조기졸업의 기회제공	18(24.0)
선택과목의 확대이수	8(10.7)
전공보충을 위한 더 많은 공부	9(12.0)
대학시설의 활용확대	4(5.3)
기초과목의 보충	3(4.0)
기 타	8(10.7)
전 체	75(100.0)

학기 개설의 일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음의 반응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여름학기를 반응한 학생 자신이 수강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수강하겠는가라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평소의 학기에 학점을 적게 신청해서 성적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전체의 44%로 나타났고, '학점이 안 나온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서가 24.4%로 나타났다.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19.3%로 적게 나타나서 여름학기 개설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과 자기의 직접적인 수강 이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여름학기의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유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즉 '강의기간이 짧아서 강의내용이 불성실'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학생의 27.7%가 반응했고 '학점당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이 16.9%, '개설하는 과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여름방학때 실시되는 계절학기에 대한 생각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돈과 학점과의 교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란 반응도 7.7%나 나타나, 여름 학기가

<표 8> 여름학기를 수강하려는 이유 (%)

수 강 이 유	학생의 반응
평소학기에 학점을 적게 신청해서 성적을 확실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87(44.2)
학점이 안 나온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서 조기졸업을 위해서	48(24.4)
방학이 너무 길어 시간절약을 위해서	38(19.3)
전 체	24(12.1)
전 체	197(100.0)

<표 9> 여름학기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개설의 반대이유	학생의 자유반응
강의기간이 짧아서 강의내용이 불성실	18(27.7)
학점당 등록금이 비싸다	11(16.9)
개설 교과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8(12.3)
자기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8(12.3)
무더위로 인한 비능률	6(9.3)
초과 학점과의 교환이라는 생각 때문	5(7.7)
기 타	9(13.8)
전 체	65(100.0)

좀더 면학 분위기를 강조했으면 하는 인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 4. 여름학기의 敎科課程

여름학기에 개설해야 할 敎科課程의 특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에게 동시에 의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즉 학생들은 '전공 선택과목'의 개설(31.9%)과 '일반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26.1%). 이에 비해서 교수들은 먼저 '교양과목'의 개설을 강조하고 있고(31.0%), 다음으로 '전공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25.0%).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전공학과목에

<표 10> 여름학기에 개설을 희망하는 敎科課程 (%)

교 과 과 정	학 생	교 수
전 공 선택 과 목	98(31.9)	21(25.0)
일 반 선택 과 목	80(26.1)	15(17.9)
교 양 과 목	74(24.1)	26(31.0)
전 공 필 수 과 목	44(14.3)	11(13.1)
교 척 과 목	11(13.6)	11(13.0)
전 체	54(100.0)	307(100.0)

관한 교과과정이 단조로운 데에서 오는 실증으로 전공 선택과목의 이수율과 일반 선택과목의 확대이수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수들은 학생에게 교양과정의 이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학기에 개설해야 될 전공과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모두 '기초과목'의 개설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46.9%와 47.3%). 다음으로 학생들은 '이론과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하여(27.6%), 교수들은 '실험·실습위주의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32.7%).

<표 11> 여름학기에 개설할 전공과목의 특징 (%)

교 과 과 정	학 생	교 수
기 초 과 목	105(46.9)	26(47.3)
이 론 과 목	62(27.6)	11(20.0)
실험·실습위주의 과목	57(25.5)	18(32.7)
전 체	224(100.0)	55(100.0)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학생들은 여름 학기에 전공영역의 선택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고, 실험·실습위주의 교과보다는 기초과목과 이론과목을 더 강조하고 있어 전공영역의 심도 높고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설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 여름학기의 수강학점수와 그 효과

여름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적정학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 조사학생의 67.9%가 6학점(2과목)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며 1과목(3학점)과 3과목(9학점)까지 신청하겠다는 학생은 각각 13.8%와 13.3%로서 반반이었다.

<표 12> 여름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점수 (%)

학 점 수	학 생
3학점 (1과목)	33 (13.8)
6학점 (2과목)	163 (67.9)
9학점 (3과목)	32 (13.3)
12학점 (4과목)	12 (5.0)
전 체	240 (100.0)

또한 여름학기의 교육효과에 대한 예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즉 학생들은 전체의 41.1%가 '매일 매일 학습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반응하였고 22.8%가 '예습·복습의 기회가 적어서 효과가 적을 것이다' 라고 반응하였다. '날씨가 더워서 학습효과가 적을 것이다' 라고 반응한 학생은 14.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교수들은 '집중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3.9%, '날씨가 더워서 효과가 적을 것이다'가 33.9%로서 각각 반반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여름학기의 기대되는 학습효과

(%)

학 습 효 과 의 수 준	학 생	교 수
매일 매일 학습하므로 집중적 효과가 있다	101 (41.1)	20 (33.9)
예습과 복습의 기회가 적어 효과가 적다	56 (22.8)	14 (23.7)
다른 학기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53 (21.5)	5 (8.5)
날씨가 더워서 효과가 적다	36 (14.6)	20 (33.9)
전 체	246 (100.0)	59 (100.0)

#### 6. 여름학기에 대한 교수의 참여도

여름학기에 강좌의 개설을 희망하는 교수는 전체 조사대상 교수의 70.6%에 해당되고 연구 및 저작 활동, 또는 단순한 휴식 등의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교수는 29.4%에 해당된다.

또 여름학기에는 강의준비 시간이 적다는 반응을 한 교수는 36%에 해당되고 '늘 하던 강의이므로 다른 학기와 별 차이 없다'고 반응한 교수도 전체의 64%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수는 '전혀 없다'가 34.7%, '1명 있다'가 49%, '2명 이상 있다'가 16.3%로 나타났다. 이로써 순번제의 여름학기 강의는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다.

### I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주의 1학기는 실제로 수업에 活用되는 기간은 10주 내지 12주에 불과하다. 이 시기에 주어진 敎科課程의 내용을 완전히 이수하는데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휴일과 학교행사 및 학생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교수는 1學期의 적정 학점수가 18학점이라고 보고하였으나, 16週 1學期에 수강하는 학점수를 12학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조치가 없이 종래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육의 質的 向上을 꾀하기 힘들다.

셋째, 여름학기는 종래의 계절학기의 성격을 벗어나서 正式의 學期로 개설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의 전체 학생과 전체 교수의 83% 이상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름학기의 개설을

단순한 '학점취득의 기회'와 '조기졸업의 기회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소의 학기에 학점을 적절하게 신청해서 작성한 성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네째, 여름학기에 개설되는 敎科課程은 專攻選擇科目과 一般選擇科目을 많이 개설하여 전공영역과 비전공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보충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전공영역의 敎科課程은 基礎科目的 이수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다섯째, 여름학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제 1기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진행되는 제 2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4일씩 4주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학기는 2假期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1假期에 2개科目(6學點)씩 수강할 수도 있으며 2개의 여름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最高 12學點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여섯째, 여름학기는 매일 매일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集中的인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수에게는 '덜다'는 사실이 강의에 상당한 역효과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곱째, 여름학기의 교수 참여도는 70% 이상이 되며, 강의준비기간이 적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교수는 전체의 36%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같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학기에 2명 정도인 경우가 49%로 나타난 것은 희망에 따른 순번제에 의한 여름학기의 강의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근거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제의 길이에 관한 문제는 주어진 敎科課程의 학업성취를 極大化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편학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16주간은 모두 실제 수업과 중간고사 및 학기말고사를 치르는 기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세째, 16주를 한 학기로 했을 때는 종래의 20주를 한 학기로 했을 때보다 수강 학점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한 학기 수강 학점수는 12

학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네째, 학기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여 국·공립 및 사립대학별, 서울과 지방대학별 전국적 수준의 비교모 연구가 더 확대되어 학기제 개편에 따른 보완 조치를 계속 강구해야 한다. \*

#### 〈參考文獻〉

- 李星鎬, 大學의 學期制의 類型과 改善要因. 大學教育, (3), 1983. 5.
- 張錫祐, 여름學期的教育的 活用方案. 大學教育, (5) 1983. 9.
- 崔熙善, 學期制 調整案의 基本方向. 大學教育, (5), 1983. 9.
- Bergquist, W.H., & et al. *Designing Undergraduate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1.
- Conrad, C.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Guide to Innovation and Refor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 Dressel, P.L. and Marcus, D.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in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2.
- Goodlad, J.I. and Associate. *Curriculum Inquiry/ The Study of Curriculum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9.
- Heydinger, R.B. *Academic Plan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1980.
- Kozma, R.B., & et al. *Instructional Teachings in Higher Educ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978.
- Levine, A.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8.
- Oleson, L.C. "Calendars" Asa S. Knowles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 Sandeen, A. *Undergraduate Education: Conflict and Chang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6.
- Wells, W. "Academic Calendars," Asa S. Knowles (Ed.), *Handbook of College and University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1.